



코스피	2468.38 (0.00)	코스닥	875.04 (0.00)
금리 (미국 3년)	2.22 (0.00)	환율 (원/달러)	1077.20 (+2.00) (13일)



**[산업]**  
어게인 2002  
월드컵 분위기 띄우는  
현대기아차·KT  
06

### ‘6·13 지방선거’ 여야 희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며 민주당의 압승을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광역단체장 14곳 석권 지방선거 압승

# 표심은 ‘외국’ 보수를 심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3선 성공

지난해 5월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1년여만에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예상대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2, 3, 4, 5, L8〉

13일 오후 6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경북과 대구,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승리한 것으로 예측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북과 대구 등 영남지역 2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예상됐고, 제주도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당선예측됐다.

국회의원 재보선은 12곳 중 10곳을 민주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경북 김천 1곳, 나머지 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오차 범위 내 경합 경쟁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역·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이끌 지역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는 13일 오전 6시 전국 1만4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돼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방선거와 함께 서울 노원병·송파을을 비롯한 전국 12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았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대선 이후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마련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안규백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metroseoul.co.kr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었다. 특히 미니총선 수준의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진행되면서 정치적 무게를 더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이어 땅 투기, 공짜 골프, 병

역 문제, 건강 이상설까지 네거티브 소재로 등장하면서 난타전이 벌어지는 등 정책·공약 대결이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판세는 그동안 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 행진한 데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TV를 통해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되면서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선거기간 이어져 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사이 보수’ 결집 등을 통해 극적 반전을 노렸지만 성공을 거두진 못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 격전지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으로 예측됐다. 선거 막판 각종 논란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경기도지사 선거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고 당선에 성공한 것으로 예측됐다. /최신호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 ‘핵제거’ 속뜻 담긴 완전한 비핵화 여정 관심

# 내주 北美 실무회담서 세부내용 논의

북미 정상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기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북한과 미국은 내주 있을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인 13일 트위터를 통해 “밝은 새 미래를 향해 첫번째 과감한 조치를 취해 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감사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세계와의 약속을 수용한다면 북한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며 “김 위원장의 앞에, 그가 그의 국민을 위해 안보와 번영의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서 기억될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을 만나고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북한에게 핵을 포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번 두 정상간 합의문에는 그동안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강력하게 주장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

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 관련 문구는 없었다. 대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선 미국이 북한에게 상당한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 자리에서 “양보한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 없는 의지를 담았다”며 일부의 부정적 평가를 일축했다.

비핵화 검증 문제 등에 대해선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 검증을 하게 될 것이다. (검증엔)미국과 국제기구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과 줄다리기를 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역시 정상회담 이후 진행될 실무협상 대표로 내세웠다. 한국, 일본,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담 직후 미국 A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관련 의지가 다시 한번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그 (김 위원장)는 자신의 나라를 위해 아주 멋진 뭔가를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은 북

한의 전면적인 비핵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성명엔 ‘CVID’를 담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바로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의미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할 예정이다. 그들이 비교적 빨리 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신 빨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그것(비핵화)을 할 것이다.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빨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